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1. 29(금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명섭, 사무관 최민석 • ☎ (044) 201-332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내용 (한국경제, '19.11.29(금) >

- ◆ ‘부동산 자신있다’는 대통령, 팩트로 뼈때린 경실련
 -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
 -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투기세력에 혜택

□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내용은 서울 내 일부 단지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세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('19.11월 기준 평당 5,501만원)보다 낮습니다.

* '19.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,431만원/3.3㎡(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)

○ 또한,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,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*는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습니다.

* 연간변동률(%) : ('15) 4.60 ('16) 2.14 ('17) 3.64 ('18) 6.22 ('19.1~10) **0.11**

- 특히, 지난해 9.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래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.

□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,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(9.13대책 직전)의 상승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

* 최근 서울 APT 변동률(%) : (10/4주) 0.09 (11/1주) 0.09 (2주) 0.09 (3주) 0.10 (4주) 0.11

** 9.13대책 직전(%) : (9/1주) 0.47 (2주) 0.45

□ 한편,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년 정기 표본 보정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,

○ 표본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.

* 통계 품질 관련 지표인 상대표준오차(relative standard error)도 매우 낮은 수준

○ 따라서,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 부족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생산된다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(연 5%) 및 의무 임대기간(4·8년 이상)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,

○ 일부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, 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,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과 최민석 사무관(☎ 044-201-332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